

## 로스쿨 자체평가 특성화 우수사례 발표

-국제화 /한국외대, 동아대 선정  
-리걸클리닉/고려대 선정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에서 해외와 교육, 실무 등을 연계해 온 동아대·한국외대로스쿨이 국제화·특성화 부문에서, 지역사회 법률상담클리닉 등을 활발히 운영한 고려대로스쿨이 리걸클리닉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위원장 한부환)는 25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리걸클리닉, 국제화·특성화, 법학전문도서관 운영, 교육과정 편제, 학사관리의 엄정성 등 총 7개 부문에 대해 우수사례를 선정, 발표했다.

리걸클리닉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고려대는 지역사회 법률상담·외국인인권·장애인인권·인터넷법·국제인권 클리닉 5개 세부 클리닉을 활발하게 운영한 점을 평가받았다. 고려대로스쿨 학생 30여명은 지역사회 법률상담클리닉을 통해 2009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총 130건이 넘는 실제 사건들에 대해 법률상담을 제공했다. 또 이러한 활동이 법정소송에서 승소를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신고서양식을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게 하는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 외부 자문변호사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직접 난민을 인터뷰하고 준비서면 작성, 변론 참관 등의 과정에 참여해 난민지원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국제화·특성화 부문에서는 동아대·한국외대로스쿨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동아대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대학교와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28일에 걸쳐 학생 12명, 교수 1명, 직원 1명이 미국을 방문해 하루 4시간씩 실무위주의 수업을 총 80시간 수강했으며, 또 미국 로펌방문 등 현지 법조기관 방문 및 교육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동아대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위해 1인당 경비 중 36%를 지원하기도 했다.

한국외대는 ‘국제지역전문법조인’ 양성을 특성화 목표로 하고 동남아법, 러시아법, 미국법, 일본법, 중국법, 중남미법, 중동법, EU법 등 8개 권역의 지역법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운영한 점이 인정돼 국제화·특성화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 지난해 동계방학 중에는 영국 법무법인과 브라질로펌에서 각각 2명의 학생이 실무수습을 이수했으며,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로펌 등에서도 실무수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첨단 도서관동을 증축한 서울대로스쿨과 학생정원 대비 도서관입계획이 우수한 경희대로스쿨이 법학전문도서관 운영부문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강의 평가를 통해 담당 교원이 스스로 장단점을 분석하는 지속적 강의품질개선제도를 시행해 온 아주대로스쿨이 교육과정 편제부문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또 건국대로스쿨은 필답고사시 인적사항을 비실명처리하는 등 학사관리를 엄격히 하고, 학생선발에 있어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하는 평가방식으로 공정성을 높여 학사관리의 엄정성, 학생선발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뽑혔다. 경희대로스쿨도 성적평가 시 A+부터 C-에 이르기까지 9단계로 등급을 세분화하고 엄격한 상대평가제도를 시행해 학사관리의 엄정성에서 우수사례로, 이화여대로스쿨은 전임교원

1인당 1,000만원의 교재개발비용을 지원하는 등 교수개발지원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평가위는 “이번 세미나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체평가결과를 분석해 타 대학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수사례를 공유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이 동반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